

문재인, 민주당 좌클릭에 제동 ... “폭넓은 지지 필요”

당선인 모임, 127명 전원 20초 발언

문재인 민주당통합당 상임고문이 19일 “당이 좀 더 폭넓게 지지를 받으려는 노력들, 기존 보수·진보 구도를 뛰어넘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당선인대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그는 전날 라디오방송에서도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중도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안정감 있는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했었다.

4·11 총선 패배 후 민주당 중진들이 “당이 지나치게 왼쪽으로 가 중도층을 끌어안지 못했다”는 진단을 연이어 내놓은 상황에서 노무현계의 대표 인물이자 유력한 대선주자가 ‘중도의 중요성’을 이를 연속 얘기한 것이다. 노무현계에는 486세대와 더불어 중도보다는 진보를 강조하는 이들이 많다.

총선 후 민주당의 첫 당선인 모임인 이날 행사는 자숙하는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문고문은 “총선 결과가 국민 기대에 못 미쳐 아쉽고 송구하다”며 “당은 패배주의를 털고 희망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했다. 총선 결과를 낙관적으로 해석해 왔던 문성근 대표권한대행도 이날 인사말에서 “국민들에게 수권세력으로 신뢰를 얻지 못한 것 같다. 아프지만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도 성향의 김진표 원내대표도 “12월 대

선을 앞두고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당의 문호를 더 활짝 열고 과감한 인재 영입에 나서야 한다는 과제를 갖고 있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대선 출마를 결심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다.

당선인 127명은 이날 대회에서 각자 20초간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대행

64세 유인태 “나잇값 하겠다”

인재근 “김근태의 바깥사람”

문성근 대표대행 총선 패배 반성

“수권세력으로 국민 신뢰 못 얻어”

을 빼곤 모두 당선인들이어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제주도 당선인들이 “민주당이 제주를 싹쓸이했다”고 하자 좌중에 있던 원혜영 전 원내대표가 “세종시(1석)도 싹쓸이했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이혜찬 전 총리는 인사말에서 “세종시를 22일 만에 싹쓸이했다”고 하자 원 전 원내대표는 “20년 만에 부천 4개 선거구를 석권했다”고 답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새누리당 이성현 후보와 네 번째 겨룬 우상호 당선인은 “2대 2 동

점이었다. 격월간 잡지처럼 8년마다 당선되는 것은 재선이 아니라 ‘격선’이라고 농담을 했다. 4년 만에 국회에 입성한 유인태 당선인은 “나잇값 하겠다”며 기백 있게 말해 모두의 박수를 받았다. 그는 1948년생(64세)이다. 뒤이어 이인영 당선인은 “밤값 하겠다”고 되받기도 했다. 고(故) 김근태 상임고문의 부인 인재근 당선인은 “김근태의 바깥사람 인재근이다. 2012년을 반드시 점령하겠다”고 했다.

5선에 성공한 정세균 당선인은 “종로 초선 정세균”이라고 소개해 눈길을 끌었고 서울 중구의 정호준 당선인은 “할아버지(정일형), 아버지(정대철), 저까지 3대가 국회에 입성하는 전통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강경 메시지를 내세운 이들도 있었다. 정청래 전 의원은 “MB정권 4년, 길고 지긋지긋했다. MB정권 끝장내는 최전방 공격수가 되겠다”고 했다.

비례대표인 임수경 당선인은 “우리 민주당은 6·15(김대중 정부)와 10·4(노무현 정부) 남북선언의 자랑스러운 주역이다. 그 점 가슴에 새기고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정에 당선인은 “비례대표 11번이라 총선 내내 박근혜(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비례 11번)와 맞짱 뜨는 심정으로 선거 지원했다”고 말했다. 4성장군 출신인 백군기 당선인은 “북풍을 막아내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강인식·김경진 기자 kangis@joongang.co.kr



문재인 당선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걸림돌 그냥 안 넘겨” 박근혜, 문대성 자르나

출당 속도 낼 듯 ... 이상돈 “사퇴시켜야”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후 당내에서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각종 잡음에 대해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박 위원장은 19일 비대위 회의에서 “선거 끝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저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다”며 “만약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걸림돌이 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그리고 이번 총선 때 두 번에 걸쳐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다”며 “우리 당이 민생과 관련 없는 일로 분열하거나, 과거를 망각하고 다시 정쟁을 하면 정권 재창출로 가기 전에 국민들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라는 점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이 옐로카드를 내린 대상은 1차적으로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전날 탈당회견 반복 소동을 일으킨 문대성 당선인으로 보인다. 문 당선인의 입장 반복으로 새누리당이 더욱 곤혹스럽게 됐을 뿐 아니라 문 당선인이 박 위원장을 방해막이로 삼으려는 자세까지 보이자 단호히 선을 그은 것이라 분석이다. 문 당선인을 지목한 진 않았지만 ‘걸림돌’이란 표현까지 쓴 이상 출당 등의 고단위 대응이 기정사실화됐다는 말이 나온다. 이상돈 비대위원은 “아예 사퇴를 시켜야지 그냥 출당시켜서 무소속으로 4년을 가게 되면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일부 측근이 ‘박근혜 대세론’이나 ‘대선 경선 무용론’ 등을 선불리 제기하는 바람에 비박(非朴)계의 반발을 야기한 점에 대한 불만도 담겼다는 관측이 많다.

박 위원장은 현 국면을 빨리 매듭짓고 ‘민생 모드’로 전환하는 게 목표다. 공천위 국민배심원단과 오찬 자리에서도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 안철수 서울대 교수 등 야권 대선 후보 얘기가 화제에 오르자 그는 “상대 후보가 어떻게 하든 신경 쓰지 않겠다. 저는 말 바꾸기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선거기간 유세하면서 약속했던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기는 반드시 실천에 옮기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총선 후 불거진 잡음에 대한 책임은 박 위원장 본인에게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박계 핵심인사인 이재오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보기 싫은 사람 쫓아낼 때는 속전속결로 사생결단하더니 자기 사람 잘못은 눈감고 하늘만 보니 그래서 국민에게 표를 안줬느냐”는 글을 올렸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명박계는 대거 탈락시켰으면서 제수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태 당선인은 박근혜계라는 이유로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김정하·손국희 기자 wormhole@joongang.co.kr

www.kolonsport.com

코오롱스포츠 트래블 멀티 체킷

Your best way to nature™

자연은 만능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확인하십시오. *Kolon Sport는 다양한 제품에 대해 있습니다.

코오롱스포츠와 함께하는 'Let's go camping!' Festival

Festival 1. 캠핑 구매고객을 위한 Special Gift
내용: 100만원 이상 캠핑 장비를 구매하시면 고급 카친 세트를 드립니다
일시: 4/20(금)~소진시까지 장소: 전국 코오롱스포츠 매장(단, 상설점은 제외)

KOLON SPORT®

Festival 2. 제 1회 코오롱스포츠 '달빛 캠프' 참가자 모집
일시: 5/18(금)~5/20(일) 장소: 평창 아이트리얼랜드 캠핑장
모집기간: 4/20(금)~5/10(목) 발표: 5/11(금) * 자세한 내용은 코오롱스포츠 홈페이지 참조